龍仁文化

1987. 10. 31

第 12 號

龍仁文化院

龍仁文化

1987. 10. 31
第 12 號

龍仁文化院

군 민 헌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 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차 례

머 리 말 ····· 용인문화원장 김 정 근 ··· 5

孔子思想의 再照明 ····· 明知大學校 敎授 金 渭 顯 ··· 6

龍仁郡誌를 집필하고 얻은것들 ····· 지적기술연수원 이 진 호 ···10

용구문단 <수필> ····· 가을 그리고 한권의 책 ····· 박 상 돈 ···14

< 시 > ····· 그리움 ····· 林 峻 奎 ···14

비오는 날 ····· 박 상 돈 ···18

가을 저녁 ····· 이 길 호 ···21

내가 본 땅굴 ····· 수정국민학교장 유 치 현 ···22

一事一考 ····· 同舍夫人 ····· 石 岡 ···28

꽃 꽂 이 ····· 가을 ····· 이 정 미 ···31

特 輯 ····· 우리 나라 美術의 特徵 (I) ····· 金 載 悅 ···32

옛 문헌속의 용인(10) 극기의 이야기를 듣고서 ····· 홍 순 석 ···36

용인금석유문자료(7) 陽智縣重修東軒記 ····· 홍 순 석 ···37

제17회 군민의 날 제2회 용구문화제 소식 ····· 43

사발통문 ····· 51

表紙說明 ····· 57

편집후기 ····· 58

머 릿 말

용인문화원장 김 정 근

사람이 世上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여러가지 일 들을 自己의 意志와는 相關없이 世上 사리 自體가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많은 일 거리들의 窮極的인 目的은 完全한 人間이 되려 함이 아닐까 生覺한다.

知識을 얻기 爲하여 工夫을 하고 돈을 벌기 爲하여 自己 性品에 適合한 職業을 가지며 몸을 鍛鍊 하기 爲하여 各種運動을 할 뿐만 아니라 人格을 陶冶하기 爲하여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것 等은 우리 人間生活의 目的이 아니라 完全한 人間이 되기 爲한 手段일 수 밖에 없다.

完全한 人間이란 法的인 自己責任을 지며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統合的인 人間이라 말 할 수 있을것 같다.

1452年 이태리 피렌쩨(Frenze)에서 태어나 1519年에 生을 마친 레오날드다빈치(Leonardo Da Vinci)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寫實主義畵家로서, 東方三賢王, 암굴의 聖母, 最後의 晩餐, 聖母와 聖안나, 모나리자 등 世紀의 名畵를 남긴 畵家이며 彫刻家이고 建築家인 同時에 特히 築城에 一家見을 갖었고 飛行機의 原理를 發見하여 航空機 製作에 많은 貢獻을 했으며 人體解部圖를 만든 生理學者이고 人生論을 쓴 哲學家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는 理想的인 完全한 統合人間이라는 말을 表現하기 爲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레오날디즘 (Loonardism) 이라고 한다.

사람이 宗教를 가지는 것도 그 宗教의 聖者와 비슷하게 되기 爲하여 믿는 것이고 不足한 人間의 모습을 完全한 人間의 모습으로 變貌시키기 爲함 이기에 完全한 人間은 目的이고 그를 믿음으로서 이루어 진다고 믿기 때문 이리라

恒常 自己의 不足,不足함을 느끼면서 完全한 人間이 되가 爲하여 레오날디즘에 빠지는 것도 誠實한 人間으로서 努力하는 眞摯한 참 人間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도 있다.

孔子思想의 再照明

明知大學校 教授
金 渭 顯

I

자고로 聖賢의 말씀은 時의 古今과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眞理로 받아 들여졌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 도덕, 규범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 전래의 사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자의 유가사상이라. 공자의 사상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경전이 論語이다. 이 책은 공자사후 그 제자들에 의하여 집대성된 言行錄으로 주로 사제지간에 문답한 내용이다. 이 책에서 비쳐진 공자의 인격을 정리하여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온순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검소한 君子로, 둘째, 부지런 하고 학식이 넓으며 성품이 고상하고 덕행이 있는 학자로, 셋째, 재주와 지식을 겸비하고 풍채와 기풍이 고상한 정치가로, 넷째, 정력적으로 부단히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참다운 스승으로 부각되었다.

공자는 그 당시의 사회와 가정환경으로는 도저히 위대한 성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다. 그러나 그는 부단히 好學不倦하며 도덕을 躬行實踐하여 결국 위대한 聖人으로 불려질 수 있었다.

공자의 시대는 지금부터 2500여년전인 春秋時代이다. 이때는 소위 春秋五覇가 표면적으로 尊王攘夷를 내세우고 내면적으로는 弱肉强食을 일삼던 시대로 西周建國초기의 800侯國은 170여국으로 줄어 들었다. 이러한 風氣는 결국 王과 諸侯, 諸侯와 大夫, 大夫와 士庶사이에 지켜져 왔던 엄격한 秩序는 무너지고 下剋上의 風潮가 만연하게 되었다. 예컨대 晉의 韓, 趙, 魏 三氏室은 公室을 分割占據하였고, 齊의 田氏는 氏室로서 公室을 차지하였다. 더구나 宗周가 太戎의 侵入으로 鎬京에 함락되고 幽王이 殺害되어 부득이 B.C. 771년 平王이 洛陽으로 천도한 이후부터는 제후가 왕실의 약화를 기회로 더욱 더 참월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는 제도나 규범에 의한 秩序維持가 아니라 힘에 의한 새 秩序가 형성되어 갔다. 이러한 시대상황하에서 諸子百家들이 출현하여 저마다 濟世安民의 道를 주창하고 나섰다.

여기서는 그 선도자의 한 사람인 공자의 유가사상중에서 정치와 교육면만 살펴 보고 오늘의 시대상황에 재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Ⅱ

공자의 정치적인 견해는 復古로서 정치를 혁신하여 보고자한 것이다. 복고의 이상으로 삼은 시대는 西周의 武王, 周公時代이였다.

政治의 理想은 正名 (大義名分을 명확하게 함) 에 두었다. 貴族이건 평민이건 모두 자기의 본분을 지켜서 명실상부하여야 하고, 諸侯, 大夫, 家臣, 平民까지도 본분을 넘으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君君臣臣父父子子) 정명을 벋어나면 정사가 패도를 벋어나게 되고 刑罰과 교육이 행해질 수 없으며,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치목적은 仁의 확대로서 백성을 사랑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법률에 의하여 유지되는 정치는 최고수준이 아니고 법률외에 도덕의 교화를 가해야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국가는 법률의 토대위에서는 완전히 건립될 수 없고, 德教의 토대위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법은 덕교를 시행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도덕으로 백성을 지도하고, 예절로 그들의 행위를 바로 잡아주면 백성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저절로 改過遷善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덕교의 내용은 禮와 孝悌라고 하였다. 禮는 개개인이 서로가 겸손과 인내와 사양으로 대한다면 그 사회는 예를 존중하는 기풍이 조성되어 분쟁이 없어지고 단란한 사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孝는 부모와 자식사이에 지켜져야 할 베리이다. 그러므로 이를 사람의 근본도덕으로 보았다. 부모에 대하여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臨經에 喪禮를 극진히 하며, 선조에 제사를 정성들여 지내면, 그들의 덕행은 저절로 인후하게 되고 또 자손들이 이를 본받아 효도하게되어 부모와 자식간에 정이 두터워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 悌는 형제자매간의 베리로 아우가 형을 공경하고, 형이 아우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집안은 자연히 화목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忠과 恕로 대하면 이웃간에 편안하여 진다고 보았다. 즉 忠은 忠信으로 아무 속임없는 충성된 마음을 뜻하는 것이며, 恕는 자기의 충성된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관용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기의 부모나 子女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부모나 자녀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다. 즉 내가 중하면 남도 중하고, 내민족이 중하면 남의 민족도 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다.

修身은 仁으로, 齊家는 孝悌로, 國家는 德으로 다스린다면 그 사회는 이상

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덕목의 실천은 곧 웃사람부터 행해야 된다고 하였다. 어느날 季康子가 공자에게 「어떻게 저가 백성들의존경을 받고 충성을 다하게 하며, 좋은 일을 서로 하고자 권하게 할수있겠읍니까?」라고 하니 공자는 「웃사람이 백성을 대할 때에 언행을 삼가고,거동을 정중하게 하게, 하면 백성은 자연 존경할 것이고 제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여 순종하고 아랫 사람을 사랑하면, 백성은 충성을 다할 것이고, 착한 사람을 등용하고, 능하지 못한 백성을 가르쳐 이끌어 준다면 백성은 자연 좋은 일을서로 하자고 권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웃사람이 도덕을 실천하는 표준이 되어서 이를 아랫 사람들이 본받게 하는 도덕적인 표본정치를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는 또 국가정치에 있어서의 세가지 조건을 말한 적이 있다. 子貢이 물음에 대답하기를 백성을 배불리 먹일 식량, 백성을 편케 할 병력, 백성을 믿게 할 신용이라 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공자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仁義政治를 주장하였다. 이는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사상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이후 동양의 대다수의 왕조는 이 공자의 사상을 수용하여 정치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方法論的인 제도로 국가사회를 경영할려고 하니 몸체에 맞지 않은 기성복과 같아서 늘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게 마련이다.

공자의 교육은 성공적이었다. 공자는 이때까지 귀족전유의 학술을 최초로 대량으로 체계있게 민간에 전파시킨 공로자이다. 그는 교육에는 계급이 없다. 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쳤다. 논어에「肉脯 열조각을 예물로 가져 온 평민부터 그 이상의 사람들을 내가 다 가르치치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제자중에는 閒門出身이 많았거니와 이후 布衣宰相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교육의 평민화에 기인하였다고 하겠다.

그는 학술전수는 물론이지만 인격교육에 치중하여 도덕학설과 흠없는 인생의 이상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였다. 科目은 六藝(禮, 詩, 樂, 書, 易, 春秋)를 가르쳤다. 그러나 예를 더욱 중시하였다. 이는 그가 예에 대하여 잘 알기도 하였거니와 자기자신이 몸소 예에 맞게 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교수한 예는 귀족교제상의 예모와 의식, 귀족의 관혼상례의 각종 예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그토록 교육을 중히 여기고 또 성공을 거두었어도 경제를 첫째로 하였고, 교육은 두번째로 하였다. 논어에 의하면 공자가 위나라

에 갔을 때 염유를 보고 「 인구가 참 많구려 」하니 염유가 「 정말 인구가 많습니다만 또 그 위에 무엇을 하면 좋겠읍니까? 」하였다. 공자대답이 「 백성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여야 하오 」라고 하였다. 염유가 「 백성이 부유하고 생활이 향상된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겠읍니까라고 하니 공자대답이 「 백성을 가르쳐야 하오 」라고 하였다.

Ⅲ

19세기말 이래 서구문물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외형부터 바꾸어지더니 급기야 내면적으로 변화를 가져 와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도덕은 차츰 자취를 감추어 가고 서구풍의 사고방식과 도덕, 종교 등이 그 자리를 메워가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70년대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정신문화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여 방황하고있는 실정이다.

우선 도덕이나 사회규범의 기준이 없어지고, 가치의 正·逆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서 년령이나 지역환경에 따라 부정합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한집안에 3대가 산다고 하면 이 삼대의 성장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의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왕에 美德으로 여겨왔던 孝悌, 忠恕와 같은 덕목을 가치기준으로 하고 또 교육도 인격교육 특히 禮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면 尊國家, 孝父母, 敬尊長, 奉有德하는 사회가 되리라 믿는다.

용인군지를 집필하고 얻은것들

지적기술연수원 교수
이 진 호

아주 우연한 계기로 용인군지 중 교통·통신분야를 쓰게 되었다. 대학 동문인 김영훈〈용인군 농촌지도소장〉 형에게 〈용인읍지〉를 한권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무엇에 필요하냐고 묻길래 그 방면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군에서 용인군지 편찬을 시작하였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의 추천으로 작년 12월에 용인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집필자 회의에 참석을 하였더니 두번째 모임으로 이미 각분야별로 집필자가 정하여 있었다. 나는 다른 분이 맡은 거라도 좀 넘겨달라고 하였다. 집필하지 않는 집필자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와 교통, 통신이오 하였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교통 통신만 맡아 달라고 공문이 왔다.

6월 하순에 탈고를 하고 문화원에 원고를 넘겨주었더니 재정·금융중 용인군 관계는 다 되었는데 고대·근대사에 대한 집필자가 없어 난처하다는 것이다. 나에게 그 방면의 문헌이 있으니까 그것을 빌려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렇다면 빌려줄 것없이 직접 쓰면 될 것 아니냐고 하였다. 내게는 시간이 없다고 사양을 하고 다음날 10여권의 책을 갖고 문화원에 갔다. 주로 일본 책인데 재정 금융을 맡은 이응준 문화원 사무국장이 일본어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로 쓰게 되었다. 이제 다 마치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여본다.

자료와 문헌 구하기가 힘들고 돈도 많이 들었다. 여러가지로 배운 것이 많다.

언젠가 북문 시외버스 정류소 옆에 고서점에 들렀더니 주인이 책 한권을 내보이면서

"교수님 이러한 책이 들어 왔읍니"고 한다.

제목은 華城乃影인데 수원, 용인, 이천, 여주의 관광안내 책자로 지방 명소의 사진, 연혁이 들어 있다. 다이쇼(大正) 4주년(1915년)발행된 것으로 수원군청(현 수원시, 화성군, 시흥군 일부가 관할) 사진을 비롯하여 경

기도 자혜의원(도립병원 전신), 권업모범장(농촌진흥청 전신) 용인군 용수 농계조합사무소, 교량 등 사진이 들어 있다. 52쪽 밖에 안되지만 희귀한 사진이 많이 있어 탐이 나는 책이었다.

"얼마요?"

"만 오천원 내십시오"

이 책은 용인군지 집필에도 크게 참고가 되었으며 귀중본으로 다른 사람은 비싸다고 하겠지만 나는 아주 싸게 산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에 대한 한국의 문헌은 많지도 않지만 내용도 개략적이다. 일본인이 한국인은 개론에 강하고 각론에 약하다고 평을 한다는데 일리가 있는것 같다. 그리고 특히 사진자료가 부족하다. 그대신 일본책은 상세하고 사진이 많은데 자신들의 치부는 숨겨 놓고 잘한 것만 내세우는 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철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이다.

1940 년에 발행하는 〈조선철도철도40 년약사〉라는 책자가 있다. 철도에 관한 책을 보면 이 책에서 많이 인용을 하였는데 꼭 구하고 싶었다. 인사동 고서점에 들려서 찾았더니 마침 있다고 하여 목차를 훑어 보았다. 제목이"약사"이지 내용이 상세하고 특히 수여선 계획에 관한 기사가 나와 6만원을 부르는 것을 두 말없이 샀다.

1970 년에 일조각에서 출판한 〈한국금융사연구〉는 몇권 안되는 금융사 중의 하나다. 고서점에 둘러보아도 없어서 허설수로 일조각에 전화를 걸었더니 절판된지 오래라는 것이다. 보존본이 있으면 복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더니 혹시 창고에 한두권 남아 있을지 모르니까 2.3일 후에 다시 전화를 하여 달라고 한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전화하였더니 꼭 한권 있어 사무실에 갔다 놓았다는 대답이다.

농협중앙회 도서관을 찾아가서 금융사에 관한 책을 찾아보았더니 1929 년에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발행한 조선금융조합사(일본책)가 있는데 분량도 많고 사진도 많으며 내용도 좋았다. 전량 복사를 부탁하였더니 난색을 표시하길래 또 인사동 고서점 순례를 하였다. 민서 〈조선철도40 년 약사〉를 산 그 서점에 들렸더니 그 책이 있길래 얼마나 반가운지 함성을 지르고 싶었다. 값을 물어보니 우선 비싸다고 하며 대답을 안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다가 8만원을 내라고 한다. 다른 책 두권을 더하여 세권에 16만원 부르는것을 간신히 사정해서 14 만원에 샀다. 그 때 돈이 모자라서 사지 못한 1937 년 발행 〈조선금융조합과 인물〉 (일본 책)에 무엇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들려 차근차근히 읽어보니까 사무소는 물론 전국의 금융조합 용인.

백암. 신갈금융조합 사무소의 사진과 역대 조합장, 조합 현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농협 도서실에도 없고 용인금융조합의 후신인 용인농협에도 그 뿌리를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눈이 번쩍 띄어 값을 물으니 5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간신히 깎아서 4만원에 샀다. 집에 와서 목욕을 시켰더니 검은 물이 많이 나왔다. 열번쯤 닦으니 겨우 맑은 물을 토해 냈다.

외국에서는 학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며 문헌을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서실에 필요한 책을 요구하면 사서가 몇시간내에 그 책들을 교수 책상위에 갔다 놓는다는 것이다.

수집하는 시간과 돈이 안 드니까 그만큼 많이 연구할 수 있고 따라서 큰 성과가 이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풍토가 부럽고 그러한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 네분야의 글을 쓰는데 기왕에 있던 것, 새로 산 책에 든 비용을 다 합하니 60만원이 들었다. 고료는 100만원 정도인데 이만큼 투자를 하였고 기간은 8개월이 걸렸으니 장사치고는 밑지는 장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 일본의 재정 침략사를 분명하게 알게 된것도 큰 수확이다.

우리 나라에는 이를 저지하려는 이용익 같은 인물이 있었고 한말의재정을 좌우한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따로(目賀田種太部)가 "이토오 통감이 탁지부차관을 하라고 권하였으나 차관으로 있는 류정수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들 물리치고 내가 앉을 수 없다"고 한 류정수(柳貞秀)라는 인물도 있었다.

그런데 류정수는 백과사전이나 인명사전에는 물론 안 나오고 메가다에 관한 기록도 거의 없다.

류정수에 관한 것은 여러 책에 단편적으로 나온것을 꿰매어 작성하였다. 인물 프로필의 기본요건인 출년, 몰년, 출생지, 사진은 어느 곳에도 없다.

때마침 유길준전이 출판되었다. 유는 서유견문을 쓴 유명한 한 말의 개화론자로 류정수의 처남이고 이 둘은 윤치호와 함께 최초의 일본 유학생 이었다. 출판사에 그 전기의 저자인 유동준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를 통하여 류정수의 손자인 류기홍 사장(우춘방 꽃집)을 찾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였다. 류정수가 일본 유학을 하였으면서도 총독을 만나서도 우리 말을 하였다든지, 작위를 사양하였다든지 하는 일화도 들었다. 이런분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으니 적지 않은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는 재정학은 있으되 재정사는 단행본으로 나온 것이 단 한권도 없다. 그런데 일본인이 쓴 한국 재정사

는 단행본으로 나온 것만 3권이 있다. 금융사에 관한 단행본은 두 세권에 불과한데 일본인이 쓴 한국 금융에 관한 책은 11권이나 된다. 일본인은 이만큼 기록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보다 앞서가는 요인일 것이다. 우리는 기록에 약하다. 이것이 그들에게 뒤지는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많은 문헌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귀한 보물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한국에 한두권 밖에 없는 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헌들은 두고두고 나의 연구대상이 될 것이고 원고를 쓰는대로 돈이 되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투자한 돈은 아주 적은 금액이다.

자료 : 향기 제49호 1987. 9.20. 발행

<용구문단>

<수필>

가을, 그리고 한 권의 책

박 상 돈

어느덧 九月.

문득 올려다 본 하늘이 저만큼 더 높아 보인다.

불과 며칠 새 온몸으로 느껴지는 계절의 감각이 판이하게 다르다.

피부에 내려앉는 햇빛이나 바람의 감촉.

이미 끈적한 뜨거움이 늘어붙던 팔월의 것이 아니다.

낮의 길이도 확실히 짧아지고, 거리 한 모퉁이엔 헌책을 펼쳐놓고 손님의 발길을 기다리는 책장사가 등장한다.

책방을 드나드는 사람의 숫자도 눈에 뜨이게 많아졌다.

그렇다.

이제는 한여름의 태양 아래서 뜨겁게 출렁거리던 감정을 억제하고 조용히 모든 것을 돌이켜 생각하며 거두어 들여야 할 때.

결실의 계절이다.

男兒肥秋라던가?

가을에 살찌는 것이 어찌 남자뿐이겠는가마는 성숙의 정도나 깊이를 보아 이렇게 대표한 것일 게다.

肥秋男兒.

물론 잃었던 미각이 되살아나 육체적으로 살찌는 季節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 정신적인 성장을 두고 이른 말이리라.

가을에 人間을 살찌게 하는 것.

그것은 讀書와 對話와 思考이다.

그중에도 對話는 相對, 즉 좋은 話者를 必要로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손쉽게, 그리고 마음먹은대로 혼자도 할 수 있는 것이 곧 讀書이다.

나 역시 내가 익힌 良識中의 가장 많은 것을 讀書에서 취했다.

가을 깊은 밤, 燈을 밝혀놓고 넘기는 책장속에서 이미 경험한 것을 同感하거나 새로운 것을 깨달아 감탄함은 참으로 의미 깊고 정취있는 일이 아닐수 없다.

나의 독서벽은 어릴 때부터 였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고등학교 이학년 시절, K대 국문과 출신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다.

1 m 85 cm의 훤칠한 키에 경상도 사투리가 특이하던 국어 선생님.

그 분이 흥에 겨워 눈을 반쯤 감고, 교단을 오락가락하시며 가시리나 思美人曲等을 줄줄 읊어대던 모습이 그렇게 멋있고 매력적으로 보여졌다.

九月 어느 날.

하루는 그 선생님이 나를 단독으로 호출하셨다.

그리고는 방학과제물로 써왔던 수필과 단편소설을 꺼내놓고 나름대로의 평을 하시며 수업이 끝나면 집엘 들르라는 것이었다.

이틀 후, 저녁. 같은 반 친구와 선생님댁을 찾은 나는 방문을 연 순간 장서(藏書)의 수량에 놀랐다.

두잔반쯤 되는 전셋방 한편에는 옷장이 놓여있고 나머지 삼면의 대부분이 수백 권은 족히 될 책으로 가리워져 있었다.

사모님께 차를 주문한 그 분은 낙동강 하구의 아름다운 고향 얘기며 학창시절, 특히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용돈을 아끼어 책을 사 모았던 소중한 경험담들을 차례대로 들려 주셨다.

밤이 이슥할 무렵까지 담소하던 선생님은 世界文學思潮와 韓國文學의 흐름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讀書의 必要性과 重要性을 강조하시면서 책을 한 아름 안겨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부터 일년 후, 선생님이 서울로 전근을 가실 때까지 나는 책속에 묻혀버렸다.

한국문학전집은 물론 세계문학전집, 철학서적 종교서적에 이르기까지 밤낮과 장소를 가리지 않은 채 수백 권의 책을 두루 섭렵하면서 참으로 느낀 바가 많았다.

우선 배움에 대한 개념이었다.

배움이란 우리 학생,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진학을 하거나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좀 더 참다운 인간, 大義나 公益을 위해서라면 自信을 거리낌없이 버릴 줄 아는 인간다운 인간을 修養시키고자 마련된 大道요 가르침이라 여겨졌다.

그래서 화학방정식을 암기하고자 애쓰는 시간으로 기꺼이 良書 몇 장을 즐겨 읽었다.(그릇된 판단이었지만)

심지어는 수업시간에도 책상밑에 혹은 교과서에 포개어 놓고 세익스피어전집을 읽기까지 했다.

삼사일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선생님댁을 찾아가서 바꾸어 읽던 책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슴속에 되새기던 사제지간의 정.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오십세 가까이 되셨을 그 분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내가 잊지못할 사람중의 한 분임은 틀림이 없다.

그 후 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생활때문에 많은 책을 가까이 하지 못했었다.

그저 짧은 기간 유행되는 대중소설이나 누가 괜찮더라고 일러주는 책정도나 읽었을 뿐.

그러나 제대를 하고나서 꼭이 우연만도 아닌 그런 기회로 어느 사람과 서신을 나누면서 다시 책을 찾게 되었다.

그 때까지 나는 십년 전에 읽었던 책들로 미루어 다른 사람 못지않게 다독했다는 얄팍한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그 보잘 것 없는 자만이 상대의 편지에 실려오는 몇 부분 귀절 귀절에 의해 여지없이 깨어져 새로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다.

편지속에는 내가 전혀 듣지도 읽지도 못했던 시나 눈이 번쩍 뜨이는 책의 일부분이 담겨져 있어 그 글을 읽는 나는 무릎을 치고 탄식하며 감격해 할 정도였다.

아, 아./그 때의 절실히 가슴을 울려주던 그 멋진 귀절들.

무릇 책속에는 그 얼마나 많은 삶의 발자취와 그 인생의 역사속에서 이룩하고 형성된 진리며 위대한 사고의 결정체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지금까지 위대한 인간을 위대하게 길러준 것도 책이요, 그 인간의 위대함을 위대하게 전해준 것도 책이며, 위대한 사람의 위대한 면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도 역시 책이다.

책이 안내해주는 성현들에로의 길.

책이 공감케하는 성인들의 말씀이며, 책이 깨닫게 해주는 그 불변의 사상.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건너 생생히 전해져 오는 선인(先人)들의 숨결과 眞理의 의미.

책이 있으므로 우리는 감미로우면서도 가슴 저린 사랑을 맛볼 수 있고, 책이 있으므로 우리는 피눈물 나는 고통과 슬픔, 시련등을 간접적이나마 체험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한 번 뿐인 제한된 삶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몇 번으로 갑절하여 살 수 있는 것이다.

말은 인간에게 재치를 길러주고, 글은 분명함을 심어준다고 했다.

유창한 언변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매료시키나 쉬이 사라지므로 능히 허황될 수 있어 믿기 어렵다.

만일 기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저 불세출의 성웅 이순신 장군의 거룩한 승

전기나 만고의 현군 세종대왕의 빛나는 업적을 어찌 이어받고 길이 후손에 물려줄 수 있겠는가?

또 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동서고금을 통하여 내노라하는 학자와 철인의 말씀으로 사물이며 삶의 참된 격치(格致)를 깨달을 수 있고 불후의 명작을 남긴 문인들의 생에의 고뇌와 벅찬 사랑의 감동을 음미할 수 있겠는가?

글이 기록되어 책으로 전해지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속에서 엮어지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넘겨받을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九月.

초목도 그 나름대로의 빛깔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

우리도 산으로 바다로 내닫던 헛된 욕망을 거두어 들이고 조용히 서상머리에 불을 밝힐 때이다.

이 무렵 우리는 외로워야 한다.

고독하고 고독하여 못견디게 허허로워지면 그 텅빈 가슴으로 한 권의 양서를 찾게 하여야 한다.

인간은 경험하고 타인의 것을 견주어 깊이 사고한 다음 빈 마음으로 觀照하여야 비로서 살찌게 되는 것.

넘기는 책장속에서 그간 우리가 멀리 하였던 시인과 영웅을 만나고, 성인과 철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창문 너머로 가만히 소근거리는 바람이며 자연과도 대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이들이 남겼던 발자욱을 더듬어 보고 자신의 바른 위치와 나아갈 바를 깨달아 좀 더 나은 내일로 발돋움하여야 한다.

이제는 가을.

흐르는 물마저 스스로 정화되어 맑아지는 季節.

우리도 밤하늘에 영롱히 반짝이는 별들이며 밤을 지새워 삶을 노래하는 풀벌레들의 향연을 벗삼아 讀書三昧에 몰입할 때인 것이다.

한 알의 능금처럼 올차게 영글어 성숙하는 보람을 위하여.

하나의 나이테처럼 의미와 자취를 선명히 남길 수 있는 벅찬 삶을 위하여 …….

(詩)

그 리 움

林 峻 奎

간간히 설레이기만 하는 빗방울
유리창에 입김을
하아 하아 불며
지워지지 않게
그대
골목 끝에서 만나는
언제나 젖어서
조금만 더 낮게 속삭이면
물이 되는 그리움

(詩)

비 오는 날

박 상 돈

비가 오는 날엔
흠뻑 젖은 새 되어
삶을 느끼고 싶다.
그렁이는 눈물 한숨속에
보고픈 이를 떠올리다가
비가 오는 날엔
살풋이 잠들고 싶다.

꿈속
내 인생의 창가에 기대앉아
방울 방울 떨어져 내리는 빗물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 그려보고
내친걸음
애환(哀歡)어린 거리를 지나
마음아는 길 동무 만나면
지순한 마음 그와 더불어
미움과 고뇌일랑 모두 쓸어안고
거침없이 흐르는 물결이고 싶다.

지나는 풀잎마다 손 흔들며
흐르고 흘러서
개인날 아침 냇물이듯
환멸도 부정도 넘어
향기 머금은
한송이 꽃으로 피어날 즈음
가슴열고 기다리는

<용구문단>

어느님의 품에 이르러
영원히 넘실대는 기쁨이고 싶다.

비가오는 날엔
나를 버린채
빗물이 되어
마냥 흘러가고 싶다.
사모하는 이의 곁으로

(詩)

가 을 저 녁

이 길 호

내게 있어 지금
조그마한 바램은
햇님과 조금 더 같이 있기를
땀방울 떨어져
바닷물로 옷을 빨아 입어도 좋으리

꽃들은
한번만 피었다진다지만
햇님의 덕으로
또 한번 무더기의 꽃들이 활짝 피어
모두 열매로 맺어졌으면
웃음꽃 피어나리

가을날
내게 있어 기쁨은
언제까지나 황금빛에 취해
앞으로 앞으로만
달려가기를

네 가 본 땅굴

수정국민학교장
유 치 현

대화뒤에서 파내려 온 남침땅굴

북한은 공산주위로 분장한 아시아적 전제권력체제 밑에 놓여 있는 고도로 통제된 폐쇄사회이다. 그러한 사회를 40 여년간 통치해온 유일 절대권력자인 김일성은 궁극에 가서 자기의 통치 밑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어떤 타협이나 협력을 시종 거부해왔다. 최근 그는 북한이 처해 있는 내외정세에 따라 마지못해 우리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척하고 있지만 그 속셈은 근본적으로 변한것이 없다. 그 실례로서 대화 뒤에 파내려온 남침땅굴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허리를 띠처럼 가로지르고 있는 동서 155 마일 거리의 비무장지대 — 1953.7.27. 휴전협정과 더불어 군사분계선이 그어졌던 이곳은, 지난 74 년말 북괴의 남침용 땅굴의 발견으로 다시금 내외의 이목을 크게 모았다. 당시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가 한창 높았던 때였기에,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북괴의 끊임없는 남침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반공에 앞장서야 한다. 그들이 파놓은 남침땅굴을 차례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반공정신을 무장해보도록 하자.

긴장감을 조성한 제 1 땅굴

북괴가 기습남침을 위해 땅굴을 파내려 왔다는 사실이 처음 내외에 알려진 것은, 1974 년 11 월15 일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발표에서 비롯되었다. 이 땅굴이 발견된 장소는 서울에서 66*km* 거리가 되는 곳으로서, 경기도 고랑포 동북방 약 8 *km* 지점인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남쪽 약 1.2 *km* 지점, 즉 휴전선 남방한계선을 불과 800 *m* 남겨놓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우리측에 발각된 것이다. 총길이 약 3.5 *km* 로 추정되는 제 1 땅굴은 폭이 약 91 *cm*, 높이가 약 1 *m* 22 *cm* 로, 벽은 조립식 콘크리트이며 천정은 콘크리트와 슬라브로 되어있었다. 발견당시 그 안에는 220 볼트, 60 와트짜리 전등과 전선이 가설되어 있었으며, 고랑포북방의 땅굴은 레일이 깔리고 궤도차가 놓여있었다. 또 곳곳에는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해 배수로를 만들어 놓았으며, 궤도차를 회전시키기 위한 회차로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와같은 규모로 보아 제1땅굴은 사실상 영구적인 군사시설과 같은 것이었으며, 만일 이것이 발각되지 않고 남방한계선의 나머지 800 m가 완성되었을 경우 1시간에 1개연대 이상의 무장병력을 남쪽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것으로 판단 되었다. 뿐만 아니라 땅굴속에 설치된 궤도차를 이용할 경우, 이 땅굴은 각종 중화기의 운반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규모였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괴의 남침용 땅굴발견을 발표한 데 이어,북괴측에 대하여 땅굴현장을 공동으로 조사하고자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괴측은 잘못을 시인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들의 선전기관을 총동원하여 문제의 땅굴은 유엔군측에 의한 조작된 정치모략이며, 자기네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억지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공동조사를 거부하였다. 북괴가 공동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들이 땅굴을 팠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저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떳떳하게 공동조사에 나서야 하지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땅굴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련제 다이나마이트, 북괴제 전화기·수통·담배·삽, 그리고 콘크리트벽에 북으로부터 남으로 내려오면서 평균 5~6 m 간격으로 새겨져 있는 굴진진척 일정등, 이러한 것들이 북괴가 이 땅굴을 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북괴의 소행은 저들이 6.25와 같은 기습적인 무력남침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이땅에 남북대치의 긴장감을 한층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렇지않아도 이미 1971년 3월부터 북괴는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비무장지대안에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때때로 우리측에 대해 총격도발까지 서슴치 않아왔다. 더우기 이처럼 북괴가 대화의 뒷전에서까지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온 것은, 그야말로 평화의 통일을 향한 겨레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반민족적 행위라 하겠다.

엄청난 규모의 제2땅굴

제1땅굴이 발견된지 4개월 후인 1975년 3월 19일 중부전선 철원북방 13 km지점 비무장지점에서 북괴의 남침용 땅굴이 또다시 발견되었다. 군사중앙분계선을 약 1.1 km 넘어온 이 제2땅굴은 처음 발견된 제1땅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큰 것이었다. 우선 지하 50 ~ 160 m까지의 단단한 암석층을 뚫은 것으로, 제1땅굴의 지하 45 m에 비하면 본격적인 남침경로라고 할 수 있다. 또 제1땅굴은 높이가 1.2 m, 폭이 0.9 m였던 것에 비해 제2땅굴은 높이가 2 m, 폭이 2.1 m로서 선채로 쉽사리 침투할 수 있

게 되어있다. 더우기 이 땅굴속에는 많은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광장이 있으며, 땅굴의 출구는 우리의 남방한계선 후방에서 세군데로 갈라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제2땅굴의 규모에 대하여 군사전문가들은 차량·야포등의 중장비와 한시간당 3만명의 무장병력 뿐만아니라 탱크까지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지하침공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1개사단 병력이나 경보병 여단병력을 1시간내에 우리의 전방부대 후방에 침투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제2땅굴이 정규전 또는 비정규전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땅굴이 우리측 몰래 완성되었더라면, 북괴는 일시에 수만병력을 남하시켜 철원에서 포천을 거쳐 서울로 기습적인 무력공격을 가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북괴는 제2땅굴이 발각되자 또다시 극구 부인하였으나 당시 귀순한 북괴 노동당 연락부대소속 김부성씨에 의해 저들의 범행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즉 김부성씨는 1975년 3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가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여러 곳의 지하땅굴은 대개 제2땅굴의 것과 비슷하다고 밝히면서, 자기가 직접 굴착공사에 동원되었던 땅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땅굴입구는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내의 북괴군 감시초소 후방 5~6 *m* 능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구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남에 5개를 설치하여 평소에는 1~2개소만 사용하고 결정적 시기에는 모두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북쪽에서 직접 확인했던 땅굴만도 개성지역에 1개, 고랑포 2개, 고랑포와 평강사이에 2개, 철원 동쪽 중동부전선에 3개, 그리고 철원 1개등 모두 9개나 되며, 이밖에도 여러 곳에서 북괴가 땅굴을 파내려오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와 같은 김부성씨의 폭로는 우리 국민 마음속에 북괴의 대한 경각심을 한층 북돋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3땅굴을 발견하는데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가장 위협적인 제3땅굴

1978년 10월 17일, 북괴가 남침용으로 파내려온 세번째 땅굴이 발견되었다. 제3땅굴이 발견된 곳은 판문점 공동감시구역에서 군사정선위원회를 지원하는 유엔군 전진기지가 있는 곳으로부터 2 *km*밖에 안되는 지점이다. 즉, 임진각에서 서북쪽으로 4 *km*, 통일촌인가에서 3.5 *km*밖에 안되는 곳으로서 서울까지 불과 45 *km* 거리인 비무장지대인 것이다. 이 제3땅굴은 우리측이 제1·2땅굴의 잇달은 발견에 따라 북괴가 휴전선 일대에 또 다른 땅굴을 파놓

았거나 파고있을 것이라고 판단,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땅굴탐색 작업을 벌인 결과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제3땅굴은 임진강하구에서 판문점으로 그어진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쪽으로 435 m까지 침범하였다. 길이는 약 1,635 m로 지하 73 m의 암석층을 파내려 왔으며, 높이가 2 m, 폭이 2 m로서 제2땅굴과 거의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아취형의 대규모 땅굴이다. 이러한 규모로 볼때 한시간당 중무장한 3만명의 병력이 3~4열로 동시에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할만한 남침용 땅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제3땅굴은 그 엄청난 규모와 함께 거리상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땅굴에 비해 훨씬 위협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괴 「땅굴파기」의 속셈

첫째는 이 땅굴을 통해 대규모 병력을 짧은 시간에 우리의 방어진지 바로 후방으로 침투시켜서 군사요충지를 조기에 점령하고 주요 지휘시설을 파괴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방부대를 교란내지 고립시킴은 물론 후방부대에도 직접 공격을 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획책하는 이른바 적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의 전후방을 동시에 전쟁터로 만들어 속전속결로 서울을 점거하는 데에 그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는 우리 사회가 혼란해질 때, 이 땅굴을 통해 비정규전 병력을 은밀하게 잠입시키는 침투로로서 활용하려는데 있다. 즉 이곳으로 게릴라 부대를 남파시켜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고 정부전복을 위한 내란을 선동 유발시킴으로써 무력 적화통일의 결정적 시기를 조장하려는 데에 그 속셈이 있다.

세째로 대남간첩을 은밀히 침투시키는 침투로와 지하 불순세력에 대한 무기공급로 등으로 사용하려는 데에도 그 속셈이 있다고 하겠다.

반공에 앞장서자

8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안정위에 경제적 성장과 정신적 성숙을 계속 이룩함으로써, 마침내 선진을 향한 새로운 도약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지금 '86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에 이어 '88년 서울올림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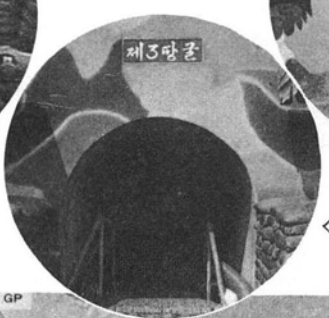
회 개최 및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 등 막중한 국가 대사를 앞두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북괴의 남침땅굴과 같은 무력침략의 행위가 또다시 재현된다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 모두가 단합된 힘과 슬기를 발휘하여 반공대열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하여 당면한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나간다면, 이 땅에는 영광된 21세기 건설이라는 새 역사의 장이 활짝 펼쳐질 것이다.

남침땅굴의 위치와 현황

	제 1 땅 굴	제 2 땅 굴	제 3 땅 굴
발견일시	1974.11.15	1975. 3.19	1978.10.17
크 기	높이 1.2 m 폭 90 cm	높이 2 m 폭 2.1m	높이 2 m 폭 2 m
깊 이	지하 45 m	지하 50 ~ 160 m	지하 73 m
총 길 이	3.5 km	3.5 km	1.6 km
침투길이	1,000 m	1,100 m	435 m
구 조	콘크리트 구조물	암석층 굴진 아치형	암석층 굴진 아치형
특 징	운반차량 사용, 배수로, 전기가설	출구를 여러개 만들어 유사시 병력을 수개지역으로 침투시킬 수 있도록 설계	
전술능력	1시간에 1개연대 병력침투 가능	1시간에 3만병력과 야포통과 가능	
예상기습 방 향	고랑포→ 의정부 →서울 (65 km)	철원→포천→ 서울 (101 km)	문산→서울 (44 km)

제 2 땅 굴

제 1 땅굴



제 3 땅굴

一事一考

同 令 夫 人

石 岡

어느해 가을 正午頃 電話 "벨" 소리에 나는 受話器를 들었다.

「예! 누구십니까?」

「趙아무 입니다」 (事情上 衒字者畧)

「예! 安寧하십니까?」

「다름 아니고 暫間 만나뵈었으면 하는데 바쁘지 않으시면 좀 나오시겠어오」

「예!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렇게 電話를 받고 잠시후 그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 갔더니

「만나뵙고자 한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가 이번에 日本을 좀 다녀왔어요…」하시면서 膳物을 하나 내놓으신다. 色奬紙를 풀으로 종이箱子의 뚜껑을 열고보니 毛筆로 中筆 小筆 두자루와 上品으로 보이는 먹(墨) 한개가 들어있었다. (日本國 奈良銘草 아까시야製品이다)

「마음에 않드시더라도 紀念으로 받아달라!」고 하신다.

나는 마음에도 勿論 들었고 또 嗜好에 맞추어 사오신것을 더욱 感謝히 여겼다.

여기서 한가지 이야기 해둘것은 이분과의 關係에 對해서이다. 이분은 龍仁國民學校 卒業回數를 따져보아도 15回 即 15年差異나 되고 年令의 差異도 自然 15년이 되리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學歷이나 經歷 모두가 大先輩이시다. 그런데도 恒常 電話하실때면 「나 趙아무요!」하고 姓銜 3字를 꼭대신다. 그래서 나는 悚懼스럽게 생각하며 만나뵙게되면 이를 따지곤(?)했으나 그럴때마다 그분은 「千萬에! 千萬에!」로 一貫 結論을 내리신다. 나는 여기서 電話 할때나 膳物을 하나 選擇하는데도 무엇인가 無言의 教訓같은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教訓이란 무엇일까? 説明은 하지않기로 한다. 왜? 一事一考이니까?

이렇게해서 나는 膳物도 받고 또 教訓도 얻게됐다. 뿐만아니라 電話로 約束이 됐다고 하시면서 點心을 함께하러 가자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신다.

우리가 간곳은 市內에있는 某로스구이 집이다. 조용하고 또 食事를하면서 談笑할 수 있는 곳으로는 아주 適當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곳에 올때마다 이야기가 좀 길다보면 主人의 눈치가 좋아보이지 않는것같아 多少 아쉬운 자리를 뜨듯이 일어서는 때도 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얘기 저얘기로 歡談을 하고 있으려니까 女子主人이 편지봉투 하나를 들고들어와 보이며 이분이 누구죠?…… 한다. 어느會社 幹部家族의 結婚式請牒狀이 들은 郵便物 이었다. 그內容은 省畧하기로하고 問題는 맨끝에가서 "同令夫人 貴下"라고 印刷돼 있는것이다. 이文字에 對해서 아는 사람은 別問題도 되지않지만 잘모르는 境遇에는 그 읽는것부터가 同, 令, 夫, 人하고 4拍子(?)로 하든가, 아니면 同令 夫人 하고 두字씩 읽는다면 그 뜻이 올바르게 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同, 令夫人 하고 同字만 떼어하고 令夫人은 同時에 읽도록 해야된다. 그리고 이 文字의 뜻은 그請牒狀을 받는사람의 夫人을 尊待해서 稱한것이다. 그렇다면 이文字를 쓰거나 印刷를 했을境遇 同令夫人 오른편에 (옆으로 됐을때는 윗쪽에) 男便되는 사람의 姓名을 써야되며 夫人앞으로 招請했을때는 이 文字를 써서는 勿論 안된다. 이미 印刷돼있는것을 使用할때 男子獨身으로 사는사람에게 보낼때는 이文字를 그대로 使用했다면 망발이된다고 생각된다. 이날 이집에 配達된 請牒狀은 女主人혼자사는 집이므로 잘못된 것임을 指摘할 수 있다.

이뜻을 잘알고있는 사람중에도 이指摘事項을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웃기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것쯤 누가 일일히 따지느냐 하고 웃어 넘기는수도 있겠으나 이는 '知而不行이면 反不如不知, 라고한 名言의 뜻을 한번쯤 생각해 볼일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우리가 書信을 남에게 보낼때 있을수있는 몇가지 參考될 글字들에 關해서 이야기를 하게되었다. 即 어느 職場의 部長 或은 課長職 그밖의 어느職位든 例를들어 ○○部長任 貴下 또는 ○○課長任 이라고 그 職位에 尊待를 하기爲해 "任"字를 쓰는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것이므로 꼭 한글로 "님"字를 써야된다.

漢字인 "任"字는 그音이 "님"이되지않고 "임"이라고 밖에 音이없다. 또 그뜻도 漢字辭典을 보면 알겠지만 맡길, 맡을, 쓸(用) 맘대로 하게할(任意) 이길(克) 等이다. 어느 한가지도 相對職位나 이름에 尊待하기 보다는 어떠한 일을 맡긴다던가 아니면 相對를 내가 쓴다. (任用)라던가 하는 뜻이 되므로 바람직 하지못하다. 그리고 이름다움에 "氏"字를 써서 尊待를 表하

게 되는데 이것은 한글로 "님"字를 쓰는것과 같다고한다. 때로는 ○○○氏貴下라고 쓰는 境遇도 있는데 이것은 自己가 尊敬하는사람 中에서도 가장 어렵고 相對어른의 이름만 써서 貴下라고만 쓰기가 至極히 悚懼할때 이름다음에 氏字를 或은 職位다음엔 "님字"를 써서 가장 尊待를 높여 쓸수있다.

이제 이날의 談笑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中에서 몇가지만 紹介하면서 어디까지나 여기 例示된것이 指導한다던가 教育을 目的으로한 意圖는 아니고 다만 參考로 하기를 바라고 한것이며 對話속에서 나온 말들이지만 或是 잘못된것이 있다면 오직 投稿者 本人에게만 그責任이 있음을 밝혀두면서 河海같은 寬容을 당부 하는바이다.

龍丘文化에 글을 기다립니다

本 文化院에서 季刊誌로 發行되는 「龍丘文化」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 要領에 의거 여러분의 주옥같은 글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民俗, 文化祭等 발굴기
2. 愛鄕心 고취에 관한 산문
3. 鄕土文化 暢達을 위한 논문
4. 각 기관 및 學校, 一般社會團體等에 동정消息等
5. 他鄕生活手記, 내가 보는 龍仁像, 龍仁 發展을 爲한 提言
6. 文藝, 詩, 時調, 수필, 꽁트 龍仁에 關한 사진等 資料
7. 可級的이면 200字 原稿紙를 使用하되 枚數는 제한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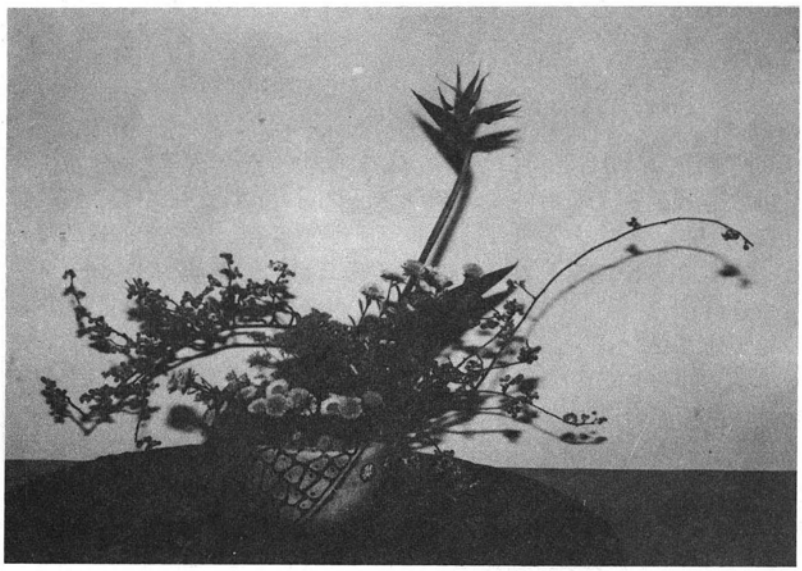
보내실 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문화원 용구문화 편집실 (전화) 2-2033

꽃 꽃 이

영지회 꽃꽃이 용인지부
지 도 오 민 근
작 품 이 정 미



~ 가 을 ~

인간에게 겸손의 미덕과 성숙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는 이 계절!
이 산하 구석구석 신의 창조
출중 가을예술의 주옥편은 무엇일까?
퇴색된 황금빛의 연륜으로 인내와
진실을 가르치는 가을의 꽃들일
것이다.
소 자연을 내 곁에 두고
내 마음에 물을 주어 진실과
영구불멸한 자연의 섭리를
이 가을의 꽃들에게 배우고 싶다.

特 輯

우리 나라 美術의 特徵 (Ⅰ)

湖巖美術館 研究室長
金 載 悅

(一)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자기가 갖고 싶어하거나 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세우거나 하여 왔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먹고 산다는 일차적인 생존상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해 지혜를 발달시키고, 또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아름다운 것을 찾거나 만들어 몸을 꾸미고 집안을 장식하고 마을을 치장하여 왔다. 인간이 동물과 명백히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살아가는데 유용한 연모의 사용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아름다움을 위해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 아름다움을 위한 인간의 창작활동을 일컬어 우리는 예술 (藝術) 이라 부르고 있다.

이 예술 중에서도, 미술 (美術) 은, 색깔이나 선 (線) 이나 덩어리를 통해 그려지고 만들어져서 사람이 눈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시각예술 (視覺藝術) 이라 부르며, 이러한 미술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형상물이 미술품인 것이다. 이 미술품에는 회화, 조각, 건축, 공예들이 포함된다.

우리가 미술을, 그중에서도 특히 옛 조상들이 남긴 미술품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미술품들이 단순히 귀하다거나 아름답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미술품 속에는 그 하나 하나에 歷史가 담겨져 있으며, 그를 통해 그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價値觀을 가졌으며 현재와 비교해 볼 때 그들이 추구했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었으며, 또 그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열을 쏟았던가 하는, 한개의 미술품 속에 담겨져 여러가지 역사적 의미를 찾고자 함이다. 글로서 표현될 수 없는 갖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미술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보다 가까이 옛 조상들의 實相에 접근해 볼 수 있고, 그 접근을 통해 오늘의 우리 모습을 되살려 보면서 先祖들이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 무언가 남겨 놓으려 애썼던 그 징표들을 확인하여,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文化遺産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自責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데에 옛 미술을 알고자 노력하는 참 뜻이 있는 것이다.

(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사에서도 보기 드문 단일민족의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또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문화를 지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며 세계사를 훑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것이 사실임을 잘 알 것이다.

아시아대륙의 맨 끝에 자리한 작은 半島國이면서 그 地政學的인 관계로 끊임없는 外侵에 시달리면서도 기나긴 역사와 유구한 문화적 전통을 이어온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왔으며, 지금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오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적 특징들을 통해, 우리 文化의 형성과정이나 전개방향등을 살펴 보면서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가 보기로 한다. 먼저, 本論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美術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인근의 中國이나 日本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때문에 우리는 文化的 自主性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中國의 인근지역은 소위 中華民族의 영향아래 거의 中國化가 이루어졌지만, 예외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文化를 발달시켜왔다. 물론 中國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결코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하던 그 영향을 우리 것으로 소화해 내어 우리 민족의 특성에 맞게끔 발전시켜, 어떤 때는 중국보다 한반도에서 더욱 훌륭하게 꽃피게 한 예도 얼마든지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한마디로 한국적 문화를 일구어낸 우리 민족의 문화적 力量이 출중했다고 밖에는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라의 옛 미술품을 볼 때, 제일 먼저 유념해야할 것은, 어떤 外來의 先進文化도 충분히 우리 것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자체적인 文化力量이 뛰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우수한 文化的 力量은 대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中國文化의 영향이 들어오기 이전인 우리 나라의 先史時代에 대해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先史時代는, 記錄이 없기 때문에 考古學的인 發掘成果에 의해 그 내용들이 밝혀져야 하는데, 백여년 전부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보다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60 ~ 70 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고고학적 방법에 의한 발굴조사활동이 활발해지면서 先史時代

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게 되었다. 先史時代는 인류가 사용한 연모의 물질적 종류에 의해 시대가 구분되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돌을 깨트려 사용했다하며 舊石器時代라 부르고 그 다음엔 돌을 갈아 사용한 新石器時代, 다음엔 靑銅을 주조하여 갖가지 연모나 무기를 만들어 사용한 靑銅器時代, 최후로 단단한 鐵을 발견, 사용한 鐵器時代로 구분하고 있다.

(三)

韓半島에서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은 40 ~ 50만년전인 구석기시대 前期부터이다. 해방전에는 이 구석기시대의 존재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부정되었지만, 지금은 20여개소가 넘게 구석기시대 유적들이 발견되어 이제는 우리 역사도 구석기시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구석기시대에서는 본격적인 예술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직접적인 우리의 조상이라고 보기는 아직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는 사항은 40 ~ 50만년전이란 까마득한 옛날에, 이미 한반도에서 사용되었던 돌연모(石器)들이 中國地域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다. 소위 주먹도끼(Hand-axe)라고 불리는 특징적인 구석기는 '70년대 까지만 해도 東亞細亞地域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주로 西유럽지역에서 분포하는 것이라 알려져 왔었는데 1978년부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강유역에서 이 주먹도끼들이 발견됨으로써, 한국에서도 유럽지역과 유사한 前期舊石器文化가 존재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어떻게 하여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한반도에서 급작히 나타나게 된 그 이유는 아직도 깊은 의문에 쌓여 있다.

구석기시대가 끝나고 지금부터 약 1만년전쯤이 되면, 인류는 신석기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부터 인류는 지역에 따라 농사를 짓기도 하고 土器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 신석기시대의 시작은 약 7 ~ 8천년전 부터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 당시 한반도에서 살았던 종족은 古시베리아族, 혹은 古亞細亞族으로 생각되며 주로 강가나 해안에서 수렵, 어로, 채집생활을 하였으며, 돌을 갈거나 깨트려서 만든 연모를 사용하고, 독특한 빗살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土器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빗살무늬土器의 존재로, 이 土器文化는 中國이나 日本의 土器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며 북방 시베리아 일대의 土器文化와 유사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같이 본격적으로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여 돌 이외에 최초로 흙을 구워만

든 土器를 사용하는 그당시 부터, 우리 나라는 인근의 나라들과 관계없이 크게 보아 광활한 시베리아지역의 文化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이다. 즉 7～8천년전 부터 한반도에서 형성된 문화는 中國과는 영향관계가 거의 없이 오히려 시베리아文化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北方 시베리아文化와의 관련성은 약 3000년전부터 시작된 青銅器時代에 들면서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우리 민족은 종족상으로는 '퉁구스'족이며 언어학상으로는 '우랄·알타이'語族이라 하여 중국의 漢族과는 뚜렷이 구분되는데, 우리 민족의 직접적 조상이 바로 이 청동기시대때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다. 青銅器文化를 담당한 주민들은, 멀리는 中央亞細亞지역과 관계가 있으며 시베리아지역을 가로 질러 滿州와 遼東地域을 거쳐 韓半島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때 한반도에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역시 시베리아文化와 관련있던 新石器時代人들을 쫓아내거나 정복·동화하면서 이 땅에 青銅器時代를 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대규모의 촌락을 형성하고 곳곳에서 일종의 정치집단들을 만들고 해서, 독자적인 韓國 青銅器文化를 이룩하게 되는데 歷史上에 나타나는 檀君朝鮮의 성립은 바로 이러한 青銅器文化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믿어진다.

어쨌던, 우리 민족의 가장 깊은 뿌리라 할 수 있는 新石器時代나 青銅器時代의 文化는 이렇게 인근의 中國과는 관련없이 北方 시베리아文化에 그 근간을 두었다는 사실은 명확한 것 같으며 바로 이런 사실들이 그 이후로 전개되는 우리나라 文化의 특질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고 믿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바탕에는 시베리아지역의 文化的 要素들이 깊숙히 내재되어 있어, 이것이 우리 민족문화의 일종의 母胎가 되어 왔고, 아마도 이런 이유로 해서 인근의 漢族과는 알게 모르게 구분되어지는 文化를 일구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하는 증거들이, 역사적으로는 古朝鮮과 中國과의 대대적인 전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샤머니즘'으로 불리는 독특한 土俗信仰이 먼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끈질기게 존속하는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美術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北方要素가 포함되면서 중국과는 다른 형태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점등이 그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우리 민족의 先史文化가 북쪽 시베리아지역의 文化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우리나라 先史文化의 특징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美術品에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에 자세히 살펴 보겠다.

옛 문헌속의 용인 (10)

극기의 이야기를 듣고서*

김종직(1431-1492) 지음
홍 순 석 옮김

용구현에서
용구[1] 를 잃었다니,
그대는 한탄하지 말라.
치달아 큰 기획 못이뤘다고.
저녁에 머물렀다 아침 출근길에
능히 빌려탈 수 있었으니,
그 주인은 본래
성인의 무리 아니었던가.

聞克己行次龍仁馬死入京寓善源舍借騎
(龍仁古之龍駒縣 本朝龍駒及處仁爲一 仍改號)

金 宗 直

龍駒縣裏失龍駒 莫恨飛騰乖狀圖
夕直朝衙能借乘 主人元是聖人徒
「佔畢齋集, 券10:16」

---

* 본래 제목은 '극기가 용인 행차시 말이 죽었으므로 서울에 올라올 때 선원의 집에 머물러 말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이다.

1) 용구(龍駒)는 용인의 옛 이름이자, 이 시에서 '말'을 가르킨다. 작자가 지명과의 연관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다.

龍仁金石遺文資料(7)

陽智縣重修東軒記

金安國 (1478～1543) 지음
홍 순 석 옮김

陽智는 작은 고을이다. 京畿안에 예속되어 貢物이 많고 賦役의 번거로움이 다른 道에 배나 된다. 땅이 좁고 사람이 적으며, 아전과 노비들은 보잘 것 없어 고을의 명목은 지킨다고 하나, 지탱해 나가지 못할 이유가 있다. 慶尙·忠淸 두 道를 왕래하는 요충지로, 公私간의 旅客들이 모이는 곳이며, 海物이나 內陸 物資를 수송하는 요지이며, 이웃 나라 일본 사신들의 禮物이 모두 집합되어 수송됨에 여가가 없고, 그들을 접대함에 다른 일(곧 縣民들을 돌보는 일)에는 돌아볼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院任이 된 사람은 대개가 자기의 직책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으며 그때에 考課[1]에서도 불량한 殿貶가 계속 나타나며, 廳舍도 옮겨졌다.

고을을 처음 설치할 때에는 청사도 구차스럽고 규모도 좁았으며, 세월이 오래됨에 기울어지고 쓰러져도 개축하여 새롭게 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니 旅客들이 지나간다든가 자고 갈 때마다 안타깝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이 새로 개축하려고 꾀하였지만, 고을의 힘으로는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을 헤아려 어찌할 수 없다고만 할 뿐이었다.

安東權氏인 權璉이 일찌기 文學으로 及第하여 名望이 높아 兩司[2]와 成均館·校書館 등에서 力量을 펴다가 强直하여 시대에 어울리지 못함에 여러번 外職으로 좌천되었다.

嘉靖 戊子 (1528) 년에 조정의 의론 중 양지현이 疲弊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훌륭한 원임을 차출하여 보낼 적에 權候가 선발되어 부임해 왔다. 처음 부임함에 고을에는 저축해둔 것이 없어 자못 官으로서의 구실을 못하였다. 權候는 우선 窮乏함을 가슴아프게 여기고, 피로한 사람을 소생시키며, 힘을 기르고, 어진 정사를 행하니, 政事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편안하여 資產이 점점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1) 考課 ;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일
2) 兩司 ; 司憲府와 司諫院을 가리킨다.

이리하여 頹落한 客館 서남 쪽에 있는 두 行廊과 관청의 창고·廳舍 같은 것을 차례로 보수한다든지, 혹은 改築하고, 혹은 개와를 갈어서 급히 보수할 것과 힘에 미치는 바를 헤아려 일을하니 모두 백여칸이나 되었다. 다시 客館의 東軒을 개축하려고 함에 옛 규모보다 크고 넓게 하려 하였으나, 일이 너무 큰데다가 흉년까지 들어 시작하기에 힘들고 벅차 근심에 잠긴지 오래였다.

蔡公 紹權이 처음 淸州枚使로 임명되어 부임할 적에 양지현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큰 더위가 찌는 듯하고 廳舍는 비좁아 하루 저녁을 지내기가 어려웠다. 蔡公은 權候에게 개축할 것을 권하였으나, 권후는 그 때에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거기까지는 손댈 수 없다고 말하였다. 庚寅 (1530)년에 채공이 承旨로 발탁되어 서울로 올라갈 적에 다시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 말을 하였으나, 얼마전에 여러 建物을 수리하면서 급한 것은 먼저 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뒤에 하였기 때문에 재정에 여유가 없다고 말하였다. 한 해를 지나 채공은 다시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양지현은 관할 고을이 되었다. 채공이 이 고을을 순찰하던 날 또 권후에게 일러 말하기를,

> "지난 날에 말한 客軒의 개축에 대한 부탁을 유의하고 있는가? 당신이 이 일을 끝내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 모든 퇴락한 것도 완전히 개축하였으니, 어찌하여 여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가?"

하니 權候가 대답하기를,

> "嚴命을 받은 뒤로부터 밤이나 낮이나 게을리 하지 않고 개축할 생각으로 애태우며 실천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다만 가까운 곳에는 山林이 없어 재목을 마련할수 없기 때문에 방황만 할뿐 일을 시작하지 못하였읍니다."

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채공의 친족이며 이 고을의 尊長인 通政大夫 韓惇公이 자리에 있다가 일어나며 말하기를,

> "내가 기른 재목 50여 그루를 제공하여 두 분들의 뜻을 돕고저 합니다."

하였다. 채공이 말하기를, "일이 잘 되었다"하고, 인하여 개축할 비용을 도와 주면서 일을 재촉하니, 韓公의 조카이며 이고을에 사는 韓營祖와 進士 李騰도 또한 서까래와 도리에 쓸 재목을 내 놓았다. 權候는 곧 속리산의 僧工 아홉 사람을 사와서 壬辰 (1532) 년 2 월에 시작하여 4 월에 끝내니, 일을 시작하여 마친 기간이 겨우 넉 달이었다. 백성들은 수고로움을 알지 못하였고,官에서는 큰 비용이 나지 않았음에도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청사는 다섯 칸이었다. 뜰에 쌓은 돌도 모두 바꾸어 다듬은 돌을 사용하였고, 집터도 잘 다듬었으며, 화려하게 단청하고 넓게 꾸며서 예전의 廳舍와는 완연히 달랐다.

또 東軒의 동쪽 모퉁이에는 따로 조그마한 집을 짓고, 집 아래에는 맑은 시냇물을 끌어다가 네모난 못을 만들었는데, 맑고 깨끗하여 밑바닥까지 보였다. 오래 묵은 은행나무는 커서 큰 구름처럼 그늘을 만들고, 못가에 서서 못을 가렸으며, 陽暉堂은 四面이 통하여 바람이 불어오면 막 힘이 없어, 시원스럽고 상쾌하여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기에 좋고, 또 따뜻한 방도 만들고, 서늘할 때를 대비하여 工人에게 시켜 모두 갖추게 하였다. 푸른 산봉우리는 그림처럼 에워싸고 소나무 잣나무는 푸르고 우뚝서서 아름다운 경치는 옛 모습보다 완연히 달랐다. 손님들이 오면 황홀하여 仙境에 들어가 絶勝에 앉은 듯 하여, 길거리 때묻은 곳이라든가 구석진 작은 고을이라는 생각을 잊고, 즐겨 말하면서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훌륭하게 이르기를,

> "權候는 총명한 자질로 작은 고을에 묻혀 있어, 가깝함을 견디지 못하겠지만, 조금도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고, 늘 여유있게 처하면서 영광스러운 벼슬자리에 寵榮을 누리는 듯 하고 지방관의 일에 대하여 비루하게 여기지 않고, 차근차근 公務를 다루는 사이에 궁하고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며,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하였다. 때로는 旅客들을 접대하고 貢物을 바침에 많은 일에 답싸여 정신이 피로하고 힘이 다함에 몸도 회복할 여유가 없는데도 또 修繕하는 일에 종사하여 工事를 일으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남는 힘을 모아 게을리 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여 백 가지 하는 일이 모두 완전하게 된데 이르러서야 마무리지어, 오랜 세월을 두고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하루 아침에 이루었으나, 어렵고 군색한 기색이 없었으니, 權候의 재질은 남보다 몇 등급 더 위에 있으며, 그 뜻과 才量은 얕은 지식으로는 알기 어려우니, 뒷날 권후의 전도는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무릇 성의를 가슴 속에 넣어 나의 직분에 마땅히 할 바를 다하여 우

리 임금에게 보답할 뿐이요, 잘 되거나 안되거나 혹은 得失로 그 지킬 바를 밝혀, 좋아하거나 괴로워 하지 않았다. 옛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진실을 힘쓰고, 굳센 마음으로 스스로 책임있게 한 사람도 이와 같았으니, 권후는 그런 사람과 거의 같도다. 저 부귀를 그리워하며 한 몸의 영화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기뻐만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될 때에는 양양하게 좋아하고 자랑하며, 자기의 직무에는 뜻을 두지 않고, 도리어 직무에 부지런하고 법도에 따라 사는 자를 비루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문득 기분이 푹 죽어 그의 本質을 잃고, 애태우고 가슴이 들끓어 몸 둘 바를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精氣는 쇠하지 않았지만, 고을을 다스리는 일에는 굳세지 못하고 원망과 분함만 더욱 심하여 직무를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자도 있으니, (이런 사람은) 권후의 顚末을 들으면 좀 부끄러워 할 것이다. 어찌 권후의 治積을 기록하여 관리가 된 자들의 규범이 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縣人에게 부탁하여 일의 내용을 써서 벽에 걸려고 한 바, 권후가 나에게 편지를 하여 小堂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청하였다. 나는 朱子의 觀書絶句[3]의 뜻을 취하여 淸鑑軒이라고 이름을 짓고, 答書에 말하기를,

> "사람 마음의 本體는 본래가 못물의 淸明함과 같아, 여러 가지 일을 빛춰, 그림자를 담고 있기 때문에, 때가 많이 묻은 것을 깨끗이 씻고 天理가 流行하여 만사를 빛춰, 응당 그 마땅한 바를 얻을 것이요, 능히 그렇지 못하고 前者의 병폐가 있는 사람은 깨끗이 마음을 기르지 못하고 도리어 욕심에 빠질 것이다. 만일 못물이 맑다 하더라도 根源에서 살아 있는 물이 오지 않고, 찌꺼기가 쌓여 흐려진다면, 어찌 항상 본의 맑은 것을 가지고 물건을 비춰 주겠으며, 권후도 마음을 깨끗이 하는 功을 얻을 수 있겠는가? 때문에 榮利와 得失에 빠지지 않고, 능히 淸明한 마음의 본체를 보존하여, 임금을 섬기면 충성을 다하고, 벼슬살이를 하면 직책을 다하면서 일의 當否를 거울처럼 비춰서 여유있게 처리하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생각건대, 권후는 공무를 보는 여가에 항상 손님과 벗들을 이 집 위에서 접대하면서 밑으로 찬 거울같은 물을 보면서 조용히 비춰 깨끗한 물이

3) 朱子의 觀書絶句는 다음과 같다.
半畝方塘 - 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淸如許, 爲有源頭活水來

오는 것을 알고, 源泉에서 새 물을 끌어들여 한 때라도 그침이 없이 하고, 그와 함께 마음을 깨끗이 하는 要點을 궁리하여 날마다 더욱 얻는 바가 있다면, 造詣가 한층 高明하여져서 일의 經論에 달하게 될 것이니, 만물을 化育하는 지역이 여기로부터 말미암아 될 것이다. 어찌 홀로 한 고을의 政事만 정리될 뿐이겠는가?

＜原文＞

陽智縣重修東軒記

陽智 小縣也 隷於畿內 供獻之夥 賦役之煩 倍蓰他道 地狹民少 吏隷彫殘 雖號能守 有不能支加之處 慶尙忠淸兩道 往來之衝 公私賓旅 輔蹄之所走集 水陸包貢方物之所轉輸 隣邦聘价 擎珮輦深 充庭實之品 咸輻湊無虛日 館接應酬之 不暇遑及於他乎 以此爲宰者 多不得安其職 殿貶相望 廨宇自移 治初營構苟率 規制隘陋 歲且久 傾圮已甚 而無能爲重修革新之圖者 賓客之歷止 輒悶欝不快 或欲爲之營謀 而度邑力不足擧 付之無可奈何而已 安東權候璉 早以文學 捷高科 蔚有聲望 臺院舘閣 施無不可 而亢直 不諧於時 累斥于外 嘉靖戊子春 朝議 以縣甚弊 擇遣良宰 候又贒選而出 初赴任 蓄儲鑿竭 殆不能爲官 候痛損約蘇疲瘵 竟力而行簡 旣政成民安 資用稍裕 於是相視官廨之頹廢者 如客舘之西南 兩廡暨縣司廳倉庫衙舍 以次繕治 或改構 或補葺 量其修之緩急 力之所及而爲之 幾百有餘間 復擬重營容舘之東軒 頗欲拓其舊規而開廣之 爲其功鉅而時屈 重於興工 沈吟者久之 蔡公紹權初以淸州牧使 將之官道 宿于縣 適盛暑蒸溽 軒宇卑隘 不能堪過一宵 勸候改構候時莅事日淺 辭謝未能 及庚寅春 蔡公拜承旨還朝 復道于此 語更及之 俄方修繕諸宇 乃以先急候緩 力未有裕爲辭 越明年 蔡公建節畿道 縣爲屬邑 巡到之日 又囑候曰 往日所語 客軒重修之托 頗留意否 非君不能了此事 想諸頹毁者 治已完矣 盍屬工於此乎 候對曰 自承嚴命 早夜不敢忘 實費度之慮 男有以奉行之 但許近境無山林 無所取材 玆回徨未遽起事耳 蔡公之族 縣尊老通政大夫韓公惇 在坐起云請出所養材五十餘條 以佐成兩公之志 蔡公善曰 事諧矣 因助給營修之費 促擧之韓公之姪縣人韓營相 及進士李騰 亦出椽桷之材 候卽倩俗離山僧工九手 起功於壬辰仲春 訖役于孟夏 首尾謹四月 民不知勞 官不傷費 而事自集 軒成爲楹者五 易等砌礎 皆用鍊石 位置儼整 丹艧煥焉 敞轂恢廓 與前宇迥殊 復於軒之東隅 別構小堂 堂之下 引淸澗爲方塘 澗澈見底 古鴨脚樹大 參雲蔭蔚 塘邊蔽翳 陽暉堂 四面 虛 風來無礙 蕭酒夾朗 尤宜朱夏却炎 亦有溫房 兼備凉候 制工而具 淸嶂碧

獻 圍擁苦書圖 長松老柘 森翠聳立 景衆精采 視舊頃別 賓客之至 悅苦入仙境而坐眞勝 不覺其爲途道塵擾之區 褊殘斗小之邑也 莫不樂道而忻華之 余聞偉之曰侯以超挨之才 屈處小縣 彫弊不可堪 而略不以爲嫌 方且雍容裕處 苦履榮突 而飽寵樂 不鄙夷吏事 諄諄薄領之間 字窮愉農桑 酬資供上獻 衆務叢萃 神疲力悴日不暇給 而又能從爭於繕修之役 興工起廢 恢有餘刃 疊疊不忘厭 必至於百爲盡完而後已 使積世難辦之擧 能成於一朝 而無艱窘之虞 侯之才 固加人數等 而其志與量 有非淺淺者所槩識 他日所期望於侯者 寧可量耶 夫懷誠抱純 竭吾職分之所當爲 以效於吾君而已 不以升沈得失 貳其所守 而置欣戚於其間 古之人 爲已而務實 弘毅以自任者 固如此 侯其度幾矣乎 彼觀富貴榮一身以自喜而已者 方其志得也 揚揚行呼唱 以相誇耀了 不以職務爲意 反謂勤事蹈覩者 爲凡鄙而指笑之 少失意焉則 便顦顇然沮衰 失其素履 咿憂熱中 若無所自容 倘非精耗氣餒 不能自强於治事 則怨尤恨忿 委置其所職而不顧焉 聞侯之風 庶少愧矣 盍書侯績 以爲官守者之式乎 方欲屬諸縣人 而揭之壁 侯遞以書來請小堂之名 余取朱子觀書絕句意 名之曰 淸鑑 而復之曰 人之心體 本如塘水之淸明 可以鑑衆類 涵光影故 能滌滌深汚 流行天理 照察萬事 應得其當 其不能然而有向者之病者 澄養之不加 而欲泊之耳 亦如塘水之淸 而能鑑物乎 侯於澄心之功 其有得乎 故不爲榮利得失所泊 而能存淸明之體 事君而盡其忠 居官而盡其職 鑑事之當否 而優處之 不亦美乎 想侯簿領之暇 常接賓明于欺堂之上 俯臨寒鑑 洞靜照映 知淸明之有自 引活水於源頭 無時而間斷 因與之窮澄心之要 而日有加得焉 則造詣將益高明 而達之經綸 參贊之域 亦由此矣 寧獨整理一邑之政而已耶

◎ 제 17 회 군민의 날
제 2 회 용구문화제 盛況裡 開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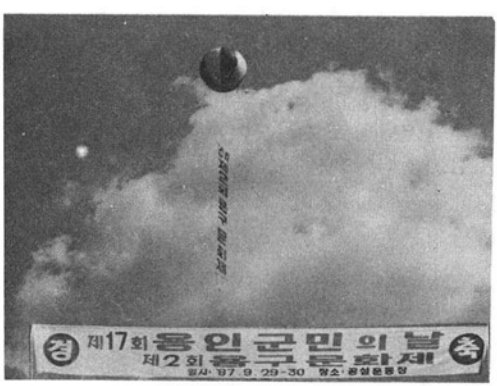
향토문화창달과 16만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 17 회 군민의날, 제 2 회 용구문화제가 9월 29 ~ 30 일 양일간에 걸쳐 용인공설운동장에서 각급기관장, 사회단체장, 일반 및 학생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고 성황리에 치루어 졌다.

1. 일반사항

1) 대회명 : 제 2 회 용구문화제
2) 일 시 : 1987. 9.29. 11:00 시
3) 장 소 : 용인공설운동장

2. 문화행사

1) 취타대 시범연주 (모현 중학교)
2) 두레 싸움 (송정 농고)
3) 연예인 초청위안공연 (KBS 협조)
4) 국악인 초청공연 (안비취, 이수라, 박상옥 국악원 일행)
5) 제등행렬
6) 불꽃놀이



3. 민속행사

1) 농악경연대회 (읍, 면대회)
2) 씨름대회 (용인장사 선발)
3) 그네대회 (개인전)

4. 시상자 명단 (각부문별)

(농악부문)
○ 우 승 : 외사면 ○ 인기상 : 이동면

○ 준우승 : 내사면
○ 장려상 : 용인읍
○ 장려상 : 구성면
○ 장려상 : 모현면
○ 인기상 : 원삼면

〈씨름부문〉
1위 : 조우연 (외사면)
2위 : 김진삼 (이동면)
3위 : 이동식 (용인읍)
4위 : 엄기보 (기흥읍)
5위 : 김광증 (용인읍)

〈그네부문〉
1위 : 정기복 (원삼면)
2위 : 임윤묵 (남사면)
3위 : 전선옥 (용인읍)
4위 : 배목화 (용인읍)
5위 : 오복희 (수지면)

제 2 회 용구문화제에 협조하여 주신분들

(무순)

성 명 및 단 체 명	성명및단체명	성명및단체명	성명및단체명
용인신용협동조합	황 근 숙	여규재	김수용
채 순 묵	이 민 구	중앙염직	김명숙
조성기 문화원기 기증	양 승 대	유건석	용인 J.C 회장
박용익 태극기 기증	박 정 옥	조명길	김학윤
농협용인군지부 및 관내	노 용 득	송후석	임홍규
단위농협일동	이 일 녕	윤진섭	국회의원
김기홍 (백암신용협동조합)	김 장 호	군정자문위원	정 동 성
박필동	이 한 구	김건중	서인원
남경우	이 광 돈	구본설	최규헌
	윤 성 기	이영우	김학규
	최 동 호		어영웅
	김 상 연		장석진

제 17 회 군민의 날

1. 일반사항

1) 일 시 : 1987 년 9 월 30 일 09:00 시
2) 장 소 : 용인공설운동장

2. 〈체육대회 종목 (8 개종목 1,055 명) 〉

1) 축 구 : 각읍, 면 1 개팀 선발 (11 개팀 121 명)
2) 배 구 : 각읍, 면 1 개팀 (9 인조) 선발 (11 개팀 99 명)
3) 테니스 : 각읍, 면 남, 여복식 각 1 팀 (22 개팀 44 명)
4) 육 상 :
— 100 m : 각읍, 면 각 1 명 (남 11 명, 여 11 명 계 22 명)
— 200 m : 위와같음
— 800 m : 〃
— 400 m 계주 : 각읍, 면 남 . 여 각 2 명 (계 44 명)
○ 단축마라톤 (20 km) : 읍, 면당 3 명이상 (인원, 연령, 성별제한없음)
○ 씨름 : 각읍, 면 1 팀 5 명 선발 (계 55 명)
○ 그네 : 각읍, 면 1 팀 여자 3 명 선발 (계 33 명)
○ 줄다리기 : 각읍, 면 부녀회원 1 팀 20 명 (11 개팀 220 명)
○ 줄넘기 : 각읍면 부녀회원 1 팀 22 명 (남자 2 명포함) 선발

3. 각부문별 입상자 명단

〈축구〉	〈배구〉	〈씨름〉	〈줄다리기〉	〈줄넘기〉
1. 구성면	1. 용인읍	1. 용인읍	1. 수지면	1. 수지면
2. 포곡면	2. 내사면	2. 포곡면	2. 용인읍	2. 용인읍
3. 기흥읍	3. 원삼면	3. 기흥읍	3. 기흥읍	3. 구성면

〈테니스〉 (남)	〈테니스〉 (여)	〈그네〉	〈육 상〉 (남)	— 100m — (여)
1. 기흥읍	1. 구성면	1. 원삼면	① 기흥읍	① 기흥읍
2. 이동면	2. 기흥읍	2. 용인읍	② 이동면	② 용인읍
3. 포곡면	3. 포곡면	3. 수지면	③ 원삼면	③ 수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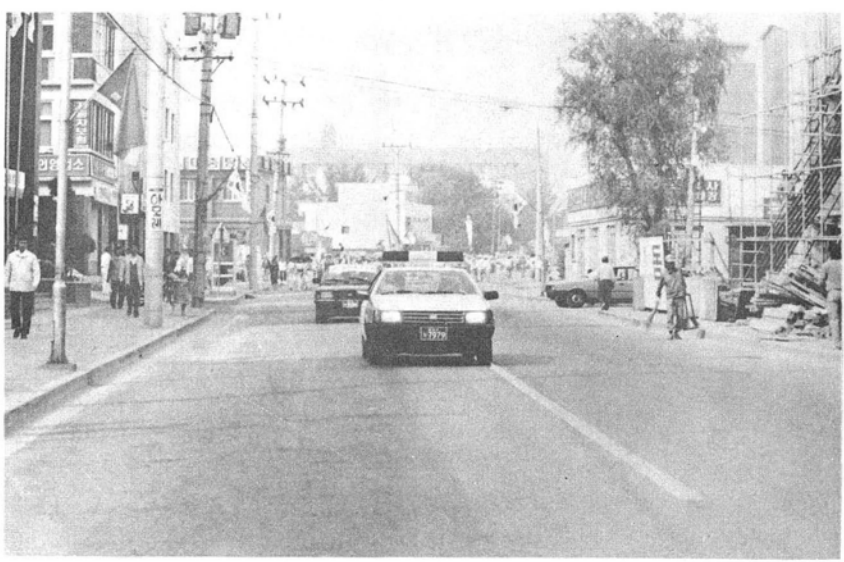
— 200 m (남) ① 기흥읍 ② 이동면 ③ 남사면
(여) ① 기흥읍 ② 구성면 ③ 원삼면

— 800 m (남) ① 구성면 ② 기흥읍 ③ 남사면
(여) ① 기흥읍 ② 구성면 ③ 모현면

— 400 m계주 (남) ① 기흥읍 ② 용인읍 ③ 이동면

○ 단축마라톤 : ① 구성면 ② 용인읍 ③ 원삼면
○ 입 장 상 : ① 구성면 ② 수지면 ③ 용인읍
○ 응 원 상 : ① 기흥읍 ② 용인읍 ③ 모현면
○ 질 서 상 : ① 용인읍 ② 포곡면 ③ 구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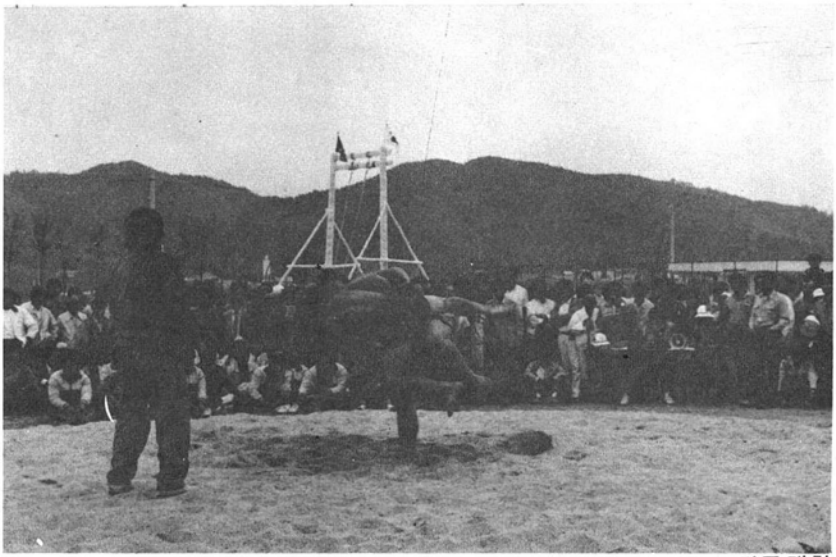
제 17회 군민의 날, 제 2회 용구문화제의 이모저모



시가 행진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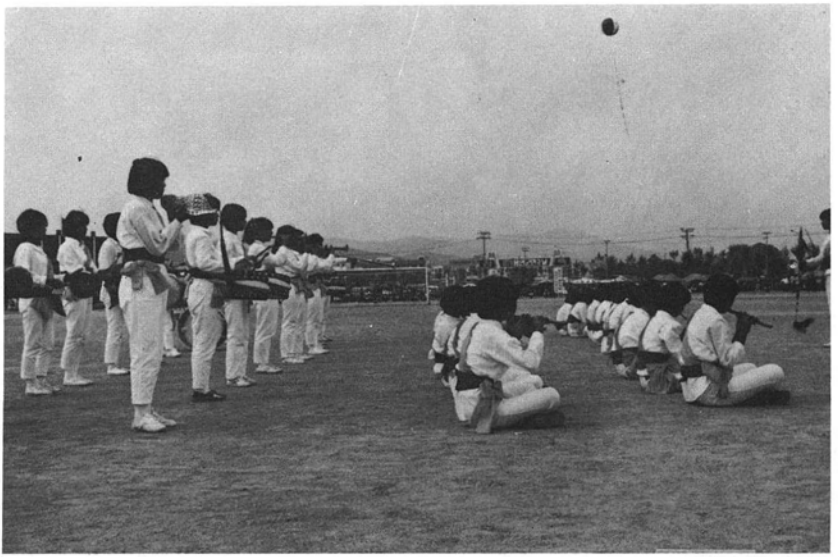
농악선수단 입장

농악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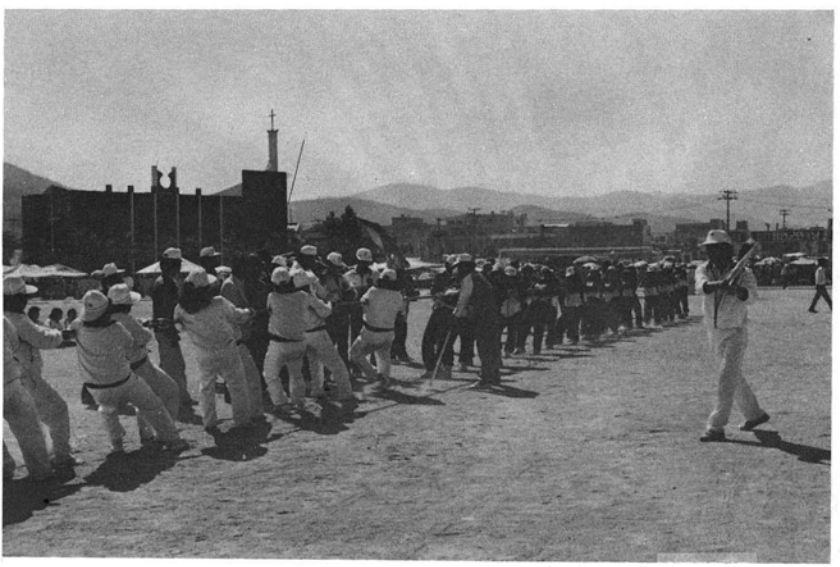


씨름대회

제등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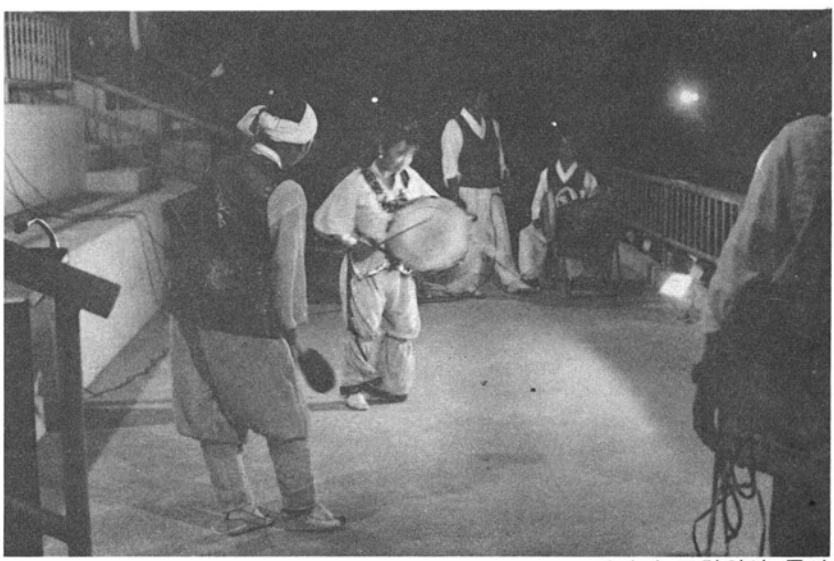


취타대 시연



줄다리기

연예인 초청위안 공연



연예인 초청위안 공연

문화원 소식

"제 4 회 영어말하기 대회"

용인 문화원 주최로 지난 9 월5 일 문화원관내 47 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말하기대회를 지도교사, 학생, 학부형, 문화원 임원등 3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대회 초등부 심사위원으로는 용인 여자고등학교 (김연수),태성고등학교 (추수진), 용인상업고등학교 (안종식), 신갈고등학교 (최병갑), 중고등부의 심사위원으로는 외국어대학 어 문학 심 재일 박사와 박 명석 교수 통역대학원의 미국인 KURT Weigelt 교수가 심사를 담당하였다.

이 대회의 각 부문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

1 위; 원삼국민학교 (박상재 , 정다운)
2 위; 서룡국민학교 (김은영 , 임현주)

서촌국민학교 (박수연 , 박애리)
남촌국민학교 (이지은 , 남송의)
3 위 ; 양지국민학교 (안성수 , 심영옥)
남사국민학교 (안혜진 , 한지희)
포곡국민학교 (정완기 , 윤영주)
운학국민학교 (홍미애 , 김유만)
대지국민학교 (김기선 , 심필섭)

＜중등부＞ "영어말하기 대회" (2 학년)

1 위 ; 태 성 중 학 교 (이도영 , 홍현표)
2 위 ; 원 삼 중 학 교 (김은희 , 임세호)
3 위 ; 용인여자중학교 (나윤영 , 이문정)

＜중학교 향토독본 암송대회＞ (2 학년)

1 위 ; 원 삼 중 학 교 (정덕균 , 홍강숙)
2 위 ; 신 갈 중 학 교 (김미애 , 기숙희)
3 위 ; 용인여자중학교 (이영재 , 이미숙)

＜고등학교 영어촌극대회＞ (2 학년)

1 위 ; 신 갈 고 등 학 교 (조규환 , 김병천 , 신혜숙 , 장정님)
2 위 ; 백 암 고 등 학 교 (신동진 , 이주은 , 조신제 , 최숙현)
3 위 ; 송전농업고등학교 (최영애 , 조금숙 , 강강현)

또한 경기도 교육위원회 주최로 지난 24 일 제 5 회 영어말하기와 촌극 발표대회에 본 문화원에서 입상한 바 있는 각 학생들이 도대회에 출전하여서도 좋은 결실을 맺었다.

각 부문별 수상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우수 ; 원삼국민학교 (박상재 , 정다운)

＜고등부＞

우수 ; 신갈고등학교 (김병현 , 조규환 , 신혜숙 , 장정님)

제 4회 초·중교생 피아노 경연대회

본 문화원에서는 관내 초중교생 대상으로 9월19일 제4회 초중교생피아노 경연대회를 학부모, 지도교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대회의 심사위원으로는 강남사회복지대학 음악교수 백태현교수와 김봉련교수가 심사를 담당하였다.

이날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특상 서룡국민학교 - 부상 피아노 1대

제 1 부

금 상	백암국민학교	문 혜 영
은 상	서룡국민학교	봉 수 미
〃	서룡국민학교	문 지 현

동 상	서룡국민학교	이 경 민
	신갈국민학교	신 선 화
	신갈국민학교	이 형 경
장려상	포곡국민학교	허 혜 미

제 2 부

금 상	양지국민학교	박 인 아
은 상	용천국민학교	박 현 숙
동 상	서룡국민학교	하 태 영
장려상	용인국민학교	김 은 선

제 3 부

금 상	용인국민학교	인 운 영
은 상	용인국민학교	홍 미 정
동 상	서룡국민학교	김 윤 경
장려상	신갈국민학교	강 주 연

제 4 부

금 상	용 동 중 학 교	박 상 미
은 상	용인여자중학교	유 은 화
동 상	용인여자중학교	박 영 선

＜인사동정＞

-- 윤성기 교육장 -

과묵 청렴하고 상호 신뢰하며 온화한 성격으로서 "21세기에 대비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통해 선진문화 국민의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덕·예·기의 조화로운 전인 교육육성에 헌신 봉사하는 교원상 및 충청북도 출신으로 충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51년도에 충주 삼원국 교사, 69년 경기교위 연구원 연구사, 72년 교감 승인, 73년 경기교위 사회체육과 장학사, 79년 김포군 금란국교장, 82년 경기교위 학무국 초등 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85년 포천군교육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 1987년 9월 1일 제7대 용인교육청 교육장으로 부임하였다.

가족은 부인 고무숙 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취미는 독서.

<인사동정>

- 송 홍만 용인등기소장 -

신뢰받는 사법부, 소리없는 실천을 업무 방침으로 두고 송홍만(宋弘萬)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장으로 1987년 7월1일자로 부임 하였다.

송홍만 등기소장은 경기도 화성군 출신으로서 부인 김민자 여사와의 사이에 1남3녀를 두고 있다.

龍 武 亭

龍仁郡體育會 弓道協會(龍武亭)創設 1週年記念行事를 지난 1987年 9月 11日 龍武亭 各機關長을 모시고 성대히 開催하였다. 이날 金長卿會長은 射父(사부) 박영수씨에게 其間指導하여주신 노고에 감사한 뜻으로 감사패를 증정하고 龍仁郡民의 弓道저변확대와 精神과 體力단련에 龍武亭으로 날로 發展하기 바라며 仁愛德行으로 弓道九戒訓을 지키는 弓道人이 되어주길 다짐하였다.

記念行事를 끝으로 會員弓道大會를 가졌다.

이날성적을보면

1位	具本卨	(구 본 설)
2位(共同)	金鎭業	(김 진 업)
〃	閔泳宇	(민 영 우)
3位	柳建熙	(유 건 희)

고 적 답 사 회

우리조상의 뜻과 얼을 알아 미래를 설계하는 일화인이 되기위함과 서양문화만 문화로 생각하고 우리의 고유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새세대에 바른 문화전통을 계승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일화 용인공장은 지난 87. 9월25일 향토문화 「고적답사회」를 구성하였다.

＜고적답사회원＞

회 장 : 한 상 진

총 무 : 김 영 엽 김 미 숙

회 원 : 강 미 경 김 광 균 이 미 숙 이 영 희
박 점 자 김 종 례 김 향 심 지 성 숙
이 순 진 이 미 경 김 미 숙 하 경 순
김 해 정 최 연 숙 김 애 진 박 미 희
박 상 호 권 병 덕 김 영 규

<표지설명>

이 주국 (李柱國) 초상

이 주국 (李柱國) 은 정종 (定宗) 의 아들인 덕천군 (德泉君) 의 후손으로 정종 1 년 (1721) 3 月 23 日에 용인군 원삼면 문촌리에서 태어났다.

이 주국이 태어나던 날 밤 부친의 꿈에 한마리의 검은 용이 대들보를 타고 올라가다 돌연 준마 (駿馬) 로 변해서 마당뜰 가운데 서 있음을 보고 낳다고 하여 처음 이름은 준득 (駿得) 이라하였고 柱國은 관례후의 이름이다.

정조가 즉위하던해 (1777) 훈련도정 (訓練都正) 으로 발탁된 李柱國은 총융군 (摠戎軍) 을 거느리고 외지에 진을 치며 훈련하고 있던중 이듬해 8 月에 정조가 여주의 영릉 (英陵) 에 행차할때 광나루까지 이르러 그 자리에서 李柱國으로 하여금 어영대장 (御營大將) 으로 임명하여 호송케하였기에 남한산성까지 달려가 부 (符) 를 받고 정조를 호종하였다.

이 공로로 좌포장 (左捕將) 이 되었다.

정조 6 年 (1782) 5 月 정조의 어명으로 춘당대에서 모든 신하로 하여금 활솜씨를 겨루게 하였는데 이때 이 주국은 계속하여 다섯발을 명중시킴으로서 정조를 비롯하여, 여러 대신을 놀라게 하였다.

정조는 그에 뛰어난 무예를 칭찬하며 그가 활쏘던 당시의 늠름한 모습을 오백당 (梧栢堂) 은 바로 이때 정조가 친히 지어준 것이다.

이 주국은 20 여년간의 관직에 있으면서 총융청에 7 회 어영대장에 6 회 금영대장 (禁營大將) 훈국대장 (訓局大將) 등을 지냈으며 78 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쳤다. 그의 부음을 들은 정조는 매우 애통해하며 조정의 대신들로 하여금 장례의 모든 절차나 자손들을 돌보아 줄 것을 명하고 무숙공 (武肅公) 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의 시신은 고향인 용인군 원삼면 문촌리에 옮겨져 안장 되었다.

현재 문촌리에는 그의 신도비와 생가등이 그가 평소 즐겨 이야기했던 기담 일화에 함께 전해지고 있다.

— 李 應 畯 —

편집후기

◎ 郡民과 더부러 커다란 季刊誌인 龍丘文化 12號를 펴내게 되었다.

◎ 이번號는 本文化院 各種行事(第四回初中高校生 英語말하기大會, 第四回初中校生 피아노경연大會, 第2回龍丘文化祭等)가 9月달에 集中되어 모든行事準備로 동분서주 하다보니 편집이 늦어지게 된점 송구스럽게 生覺합니다.

◎ 特히 12號에는 第2回龍丘文化祭와 第17回 郡民의 날과 併行實施한 이모저모를 召介하였고 明知大 金渭顯教授의 「孔子思想의 再照明」과 龍仁郡誌執筆委員 李鎭昊教授의 「郡誌를 執筆하고 얻은것들」 湖巖美術館研究室 金載悅室長의 「우리 나라 美術의 特徵(I)」等 玉橋들을 게재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李 應 畯

용 구 문 화 제12호

1987년 10월 25일 인쇄
1987년 10월 31일 발행

발 행 처 : 용 인 문 화 원
발 행 인 : 김 정 근
편 집 인 : 이 응 준
인 쇄 처 : 홍익문화인쇄사 전 화 : 274-6155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 매 품

마음은 농촌 저축은 농협

농협중앙회 용인군지부

지부장 이 재 효

차 장 김 석 기

차 장 장 용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300

전화 32-2181~9